

2025년 5월 3주차 각 지역 소식



- 🌐 **심천**
 - ✔ 中 부동산 '봄바람' 없었다...100 대 부동산 개발 업체 매출 전년比 6.7% ↓
 - ✔ 해상-국적선사 심천발 한국착 해상운임 5 월중순까지 유지
 - ✔ 미주향으로 항공운임 인하, 전세기 및 화물기 일부 서비스 중단

- 🌐 **충칭**
 - ✔ 샤오미 전기차, '자율주행' 대신 '보조운전'으로 표기 교체

- 🌐 **샤먼**
 - ✔ 중국, 해외 관광객 위한 쇼핑·세금 환급 혜택 확대...최소 구매 기준 200 위안으로 인하

- 🌐 **불산**
 - ✔ 1 분기 불산 수로 운송량 5.86%증가

- 🌐 **상해**
 - ✔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국내 여행객 3 억 1,400 만명 기록
 - ✔ 트럼프,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발표
 - ✔ 中, 희토류 수출 제한 후 가격 3 배 급등
 - ✔ 中, 38 개국 단독 무비자, 43 개국경유 무비자 및 240 시간 체류 허용 정책 확대로 1 분기 '중국여행, 중국쇼핑'

열풍 (외국인 관광객 62% 증가, 최대관광객 한국인 142% 증가)

✔상하이 레고랜드, 7월 5일 개장 확정

✔포르쉐, 중국서 전기차 판매 중단 검토

🌐청도

✔WEI-ICN 신규항공노선 7C8503 편 신규 서비스 개시, 매주 금요일, 일요일 왕복 운항 예정, 7월부터 주 3항차 운영 예정. 현재까지 위해 국제공항 "WEI-ICN" 여객 노선 3개 개설, 1분기 출입국 항공편 508편, 출입국 승객 51,2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

🌐천진

✔MSC 대련-지중해, 대련-유럽 직항노선 신규 서비스 개시, 대련-지중해 노선은 이집트, 튀르키예 등 주요 국가 기항 예정, 대련-유럽항 노선은 영국, 독일 기항 예정, 19,000TEU 급 선박 투입 예정으로 매주 1항차 운항 예정

🌐태국

✔태국, 가축 매개 감염병 확산... 주변국, 태국산 축산물 수입 중단

✔람차방항구 터미널 B1, B2 개선프로젝트(태국 항만청 산하 B1 터미널과 B2 터미널 통합) 승인

✔신용 평가기관 무디스, 태국 국가 신용전망 하향 조정

✔미관세 36% 부과 시 태국 수출 최대 1.4조바트 감소

✔태국, 알래스카 LNG 사업참여 추진... 매년 500만 t 수입검토

✔출산 감소속 반려 동물 수요 증가... 태국 펫 산업 750억 바트 규모 성장

🌐하노이

✔하노이발 인천착 항공운임 약세

✔산업은행, 베트남 하노이 지점 설립인가

✔수자원공사, 상수도 운영사업 참여로 '베트남 물시장 진출'

✔비상 경영 롯데免, 이달 말 베트남 다낭 시내점 철수

✔中, 원산지 세탁으로 美관세 우회... 말레이·베트남 경유 급증

🌐호치민

✔SK 어스온, 베트남 남동부 해상 광구서 원유 추가 발견 성공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 호조... 4월까지 211.5억달러 10.7%↑

✔빈패스트, 인도네시아서 SUV 전기차 'VF6' 공식 출시

✔베트남, 최고 20%세율 부동산 양도세 도입 추진

🌐대만

- ✔대만 달러,이틀간 9% 급등,아시아 외환시장 요동
- ✔현대로템,4200 억규모 대만 도시철도 공급계약 체결
- ✔인도 파키스탄 전쟁으로 CI & BR 유럽향 약 10 여편 영향

🌐자카르타

- ✔인니,21 년 3 분기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을 수치,무역전쟁 글로벌 성장 둔화,내수 약화,예산 제약 등
- ✔미 고율 관세로 중국 태양광 기업,인니에 투자 급부상,동남아 국가 중 미국 관세 면제국은 인니와 라오스,중국계 태양광산업 기업들 투자처로 급 부상 중,인니도 관련 산업 육성 위해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중
- ✔인니 휴일-5/12(월) 부처님오신날,5/13(화) 대체 휴일

🌐싱가포르

- ✔총선 여당 압승...66 년 1 당집권 연장
- ✔롯데면세점,싱가포르 창이공항점 사업권 3 년연장
- ✔현대차,싱가포르 공장...동남아 허브 역부족,대규모 손실 누적

🌐말레이시아

- ✔포트클랑 말레이시아 해양 단일 창구 시스템 공식 출범.선박 출입 절차 간소화.통관시간 단축
- ✔PTT 시너지,자동화 물류허브 건설 시작. 폐낭에 기반 둔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임대될 예정.말레이시아 반도체 생태계 강화 고소득 일자리 창출 기대
- ✔7 월부 전기요금 인상 예정.기업들 비용 절감 위한 재생에너지등 대체 에너지원 도입 검토

🌐마닐라

- ✔5 월 12 일 공휴일 (상의원 및 지역 선거)
- ✔마닐라 북항 선박 도착 후 접안까지 5~6 일 소요 (남항은 2~3 일)

🌐홍콩

- ✔5 월 2 일부 미국의 중국/홍콩에 대한 USD800/건 이하 목록통관제도 폐지로 전자상거래 수요 급감 전망
- ✔미국,현재 중국 홍콩에만 적용 중인 목록통관제도 폐지를 마카오로 확대할 계획

▶주간 시황 요약

Container 4주 만에 상승, 수요 부진에도 공급 조절이 이를 상쇄

Bulker 미중 관세 협상 교착 등 시장 불확실성으로 철광석 매수자는 관망세

▶Container

	5/9	4/30	증감
SCFI	1345.17	1340.93	▲ 4.24
美서안	2,347	2,272	▲ 75
美동안	3,335	3,283	▲ 52
유럽	1,161	1,200	▼ 39
지중해	2,089	2,089	-
동남아	430	438	▼ 8
중동	1,145	1,122	▲ 23
호주	771	814	▼ 43
남미	1,472	1,393	▲ 79
日서안	316	316	-
日동안	320	321	▼ 1
한국	148	147	▲ 1
동서Africa	3,740	3,729	▲ 11
남Africa	1,975	2,026	▼ 51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종합 SCFI 2주 만에 소폭 반등, 공급 조절 효과로 보합세

1. 수요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선사들의 적극적인 공급 축소로 운임 하방 지지. 머스크는 '25년 컨물동량 -1%~ -4%, 클락슨은 -0.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2. 中제조업 PMI는 3월 50.5→4월 49pt로 위축되었으며 신규주문지수도 3월 52.4→4월 49.2pt로 하락하며 무역 갈등이 中생산 전반에 악영향, 5/9~12 美中은 첫 공식 협상 예정

미주향로 美 동서안 상승세, 수요 부진은 계속되나 공급 조절이 이를 상쇄

1. 4월 중순 선적된 화물/선박이 미국에 도착함에 따라 상호관세로 인한 물량 감소가 곧가시화 될 전망. 5월 LA/LB 항 수입량은 각각 -35%, -38% 하락 예상되며 입항 선박도 1~2주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2. 수요 부진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얼라이언스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중. MSC와 Ocean 이임시결항 위주로 서안에서 -28%, -26% 공급량을 감축한 반면 Gemini는 소형선박 대체를 통해 -8% 축소
3. Xeneta社は 중국발 운임과 동남아발 운임격차가 3/31 FEU 당 \$7에서 현재 \$181까지 확대 되었다고 발표, 중국발 수요는 급감한 반면 동남아발은 단기 급증하며 운임에 영향

유럽항로 4주 연속 하락, 공급 증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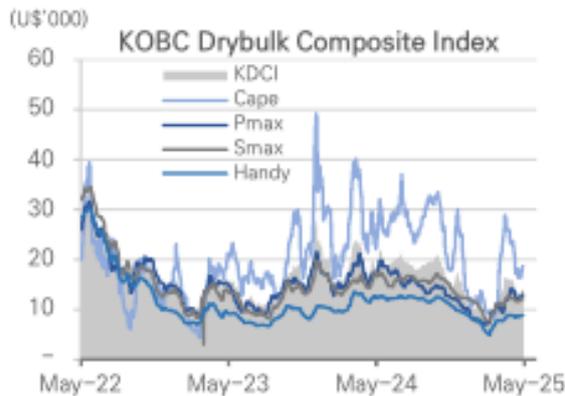
1. 4월부터 북미에서 유럽항로로 약 11.7만 TEU가 전환 배치되며 공급 압박 계속. 5월에도 공급 증가가 이어지며 한동안 북유럽 항로는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2. 中제조사는 재고 소진을 위해 프로모션을 제안하고 있으나 EU 수입사는 소비 부진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감독기관들도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추세
3. 후티반군이 美선박에 대한 공격 중단에 합의하며 위험 요인은 다소 완화. 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지속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선사들의 수에즈 운하 복귀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

연근해/기타 동남아 2주 연속 하락, 공급 증가 계속

- 인도-파키스탄 갈등 고조로 양국은 상대국 화물의 자국항 기항 금지를 발표, 5/10 휴전에 합의했으나 아직 추가 소식은 없는 상황. 선사들은 3국 환적 및 할증료 부과로 대응 예정

▶ **Bulker**

		5/9	5/2	증감
KDCI		12,712	13,780	▼ 1,068
Cape	평균	16,356	18,827	▼ 2,471
	F/H	32,250	37,392	▼ 5,142
	T/A	12,750	17,562	▼ 4,812
	Pac RV	13,688	15,047	▼ 1,359
P'max	평균	11,779	12,505	▼ 726
	F/H	16,792	17,073	▼ 281
	T/A	10,794	10,634	▲ 160
	Pac RV	9,961	11,166	▼ 1,205
S'max	평균	11,348	11,703	▼ 355
	F/H	14,058	14,498	▼ 440
	T/A	13,198	13,445	▼ 247
	Pac RV	10,905	11,163	▼ 258



Cape **미·중 관세 협상 결과는?**

1. 미·중 관세 협상 교착 상태 지속 및 조강 생산 감축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철광석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세
2.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5/10(현지시간) 예정된 미·중 고위급 통상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대로 낮추는 협상안 논의 중.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시장 심리 개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제적 관세 철회는 없다"고 밝히며 중국의 양보 없이는 인하 불가를 시사하여 협상의 불확실성 존재
3. 5/7 일 中 인민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①기준율 0.5% 인하하여 장기 유동성 1 조위안(약 192 조원) 공급, ②LPR, 역레포, 콜 등 정책금리 인하, ③금융리스사의 기준율 면제 등의 금융 완화 조치 확장, ④자본시장 대상 유동성 총 8,000 억 위안(약 154 조원) 지원, ⑤화이트리스트 부동산 기업 지원 대출 6.7 조 위안(약 1,296 조원) 지원 등 부동산 부양 조치 등 총 5 개 부문에 대한 경기부양책 발표
4.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중국의 2분기 철강 수출이 부진할 것이며 이는 중국 내 공급 과잉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 철강 수출이 감소하면 철강이 자국 내로 다시 유입되어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철강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철광석 등 원자재 수요 감소를 야기

5.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도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철광석 수요 침체 장기화 가능성

Panamax 아시아 석탄 시장 침체 장기화

1. USG 지역의 곡물 수출, 아시아 석탄 시장 수입 수요의 계속된 정체 상황으로 인해 약세
2. 美 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주간 옥수수 수출량은 전주 대비 10% 감소, 대두는 전주 대비 56% 감소, 소맥은 전주와 동일하며 전반적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
3. 우크라이나 옥수수는 주요 수출처인 튀르키예에서 5월 초 이후 수입수요가 급감.
4. 튀르키예 바이어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7월 인도분 러시아산 옥수수로 수요가 이동.
5. 러시아는 2월 이후 정부의 수출 쿼터로 인해 시장에서 거의 철수하였으나 마케팅연도 개시(7월)에 맞춰 시장에 복귀
6. 아시아 열탄 시장은 중국의 노동절 연휴 종료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높은 재고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요가 저조
7.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인디아 정부는 석탄 연계(coal linkage) 정책 개정. 이는 국내 석탄 생산 확대, 수입 석탄 수요 약화로 이어져 자국산 석탄 선호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되어 선박의 스팟 수요는 감소할 전망
8. 브라질 곡물 수확 및 수출이 운임을 지지할 것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 상존

Supramax 인디아-파키스탄 분쟁으로 인디아 석탄 수입 차질 예상

1. USG 지역과 서아프리카의 화물 수요가 운임을 지지하고 있으나 태평양의 정체가 상승폭을 제한하며 강보합세
2. 대서양은 USG 지역의 곡물 화물과 서아프리카발 화물이 유지되며 운임을 지지
3. 태평양은 전반적으로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석탄 화물이 다소 유입되고 있으나 선박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락세
4. 인디아-파키스탄 분쟁은 항로 우회, 보험료 상승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특정 항로의 운임 상승 압력이 나타나겠지만 수요 위축 가능성도 존재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